



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발행인	이강희
편집인	김정택
주필	김석철
외대신문과	2592-7128, 961-4151
외대신문	2592-7128, 961-4151 (FAX 2592-7128)
학생기자실	859-6574, 035-39-4112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고원면 원신리 489	
인쇄인	김상영

창간 1955년 4월 11일
등록번호 제 25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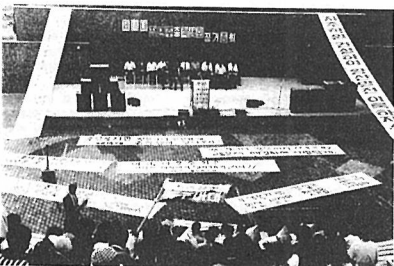
THE OE DAE HAGBO

제611호 1993년 9월 14일 (화)
1958년 3월 27일 제3종 우편물 (가)급인가

1

용인 정기학생 총회

대생협 자치권 확보 동구어대 단대분리 후생복지관 건설



지난 8일(수), 용인캠퍼스에서는 2학기 정기학생총회가 열렸다

용인캠퍼스 총학생회 2학기 정기학생총회가 지난 8일(수) 노원구 강에서 3백여명의 학생들이 참가 가운데 치러졌다.

총학생회 사무국장 김기복(사학·영이 4)은 사회로 진행될 이번 총회에 축하객으로 참가한 이창복 부총장은 "학생발전은 이룩하기 위해 우리 모두 일치단결해 함께 나아가자"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2학기 총학생회 학원자주화 사업기조를 보인 박영정(사학·이태리 4)은 "후생복지관 건설도 중요하지만 선배들이 피땀 흘린 인구가 높은 우리의 자치권을 학교측의 숫자놀음에 현혹되어 빼앗길 수 없다"며 "대학측은 학생들의 의견과 문제점이 적어 먼저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학기 총학생회 예산안에 대한 그동안의 논란에 대해 학생들의 권리와 총학생회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다.

총학생회장 김대원(사학·영이 4)은 "학우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만이 학생을 발전시킬 수 있다"며 이후 총학생회 사업을 "후생복지관 건설과 사당노선 확충을 강력히 촉구함"이라는 결의문을 통해 밝혔다.

이번 총회는 예년에 비해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했고 사회주의 운영 미숙으로 학생들의 민초를 사기도

같이 아쉬움이 크다"며 참가한 소감을 밝혔다.

한편,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는 13일(월) 당원 사안에 대한 대학측의 명확한 입장을 듣기 위한 결의서를 발송했다. 결의서는 당원사안을 16일(목)까지 설정하고 있어 대학측의 답변내용에 따라 이후 학생들의 활동방향 또한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느 한 사안도 대학측이 쉽게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이후 학생들의 거센 학원자주화 투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생협은 15일(수) 비상조립된 총회를 개최하고 대학측의 대생협 탄압에 대한 규탄 결의회를 대대적으로 치를 계획이며, 동구어대는 계속적인 생명운동과 부총장실 항의방문, 청와대 민원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운동본부는 17일(금) 후생복지관 건설과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현재 기자>

광주교대생 이경동군 분신자살

'임용고시 철폐·주한미군 철수' 요구

8일(수) 낮 12시 50분 경 광주시 북구 동광동 광주교대 학생회관 4층에서 이 군이 옥상에서 뛰어내려 분신자살을 기도. 3도의 중화상을 입고 전남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9일 오전 7시 15분 경 숨졌다.

<관련기사 9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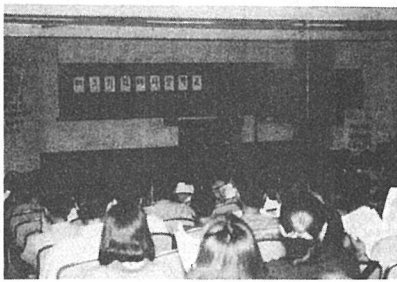
이 군의 분신행위를 목격한 이 학교 학생 이상진(용인교대 2)군은 "8일 낮 12시 50분경 학생회관 근처에서 정신을 먹던 중 갑자기 '병'하는 소리와 함께 '교원임용고시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의 구호를 외치며 쓰러졌다"고 말했다. 현장 부근 소자강에서는 숨진 이 군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신나루 2개가 발견됐으며 현장에 있던 이 군 가방안에서 부모와 학생, 국민 앞으로 각각 보내는 유서 6통이 있었다.

이 군은 평소 교육종교이러니 '아쉬움'에서 활동해 오면서 사회문제와 학교에 대해 항상 고민해 왔다고 한다. 이번 이 군의 분신을 계기로 '교원임용고시 철폐'와 '교육제정 철폐'가 정론으로 떠오르고 있다. 교원임용고시는 지난 90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올해 4년째이며, 94년부터는 완전공개채용으로 국립사범대학과 교육대학 졸업생을 우선 발령하던 의무채용 원칙이 완전히 폐지된다. 그러나 전남대

사범대와 광주교육대학을 비롯해 국립사범대, 교육대학 학생들은 "교사를 단순히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 평가, 채용하려는 교원임용고시 제는 전인교육을 포기하는 제도"라며 철폐를 주장해왔다. 한편 광주교육대학을 비롯 광주·전남지역총합생의연한 대학생 7백여명은 8일 밤 9시 30분까지 전남대 병원 앞에서 연좌시위를 벌인다. 폐교포고를 앞둔 시위를 끝낸 뒤 3백여명이 남아 이 병원 영안실 앞에서 발상농성을 계속했다.

<사회부>



지난 13일(월), 서울캠퍼스에서는 제3기 외대사랑학교가 시작됐다

서울, 외대사랑학교 개최 외대의 현재와 과거 조망 1학기 평가, 2학기 전망수립

제3기 외대사랑학교가 '새로운 출발'이라는 주제로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주최, 외대발전 학생추진위원회(외발추) 주관으로 13일(월) 입학식과 함께 열렸다.

"지난 날은 이렇게 보내왔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치러진 보낸날 강연은 외대발전 이후 학교의 역사와 학내 제세력관계에 대한 교감이 이뤄졌다. 또한 92년 2학기 때부터 지난

학기까지의 외대발전운동에 대한 평가가 본민토의를 통해 활발히 진행됐다.

그간 1,2기와는 달리 보다 넓은 학생들의 참여공간을 마련하고 일방적인 강연보다는 대중적인 토론과 평가에 외대발전의 내용을 구체화 시킨다는 목표 아래 진행된 이번 외대사랑학교는 준비과정에서 예년과는 달리 대중적으로 이뤄졌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외발추 위원장 한전규(사학·영이 4)은 "개강부터 각 단대 준비주제를 구리고 지금까지 7개 모임을 거치면서 전체학생, 강·외발추, 강의학생을 준비해 왔다."며 "지난 1,2기 외대사랑학교때처럼 학생들이 파도적인 입장에서 교양강의 대상이 아니라 준비에서부터 직접 참여하고 본민토론을 통해 보다 주체적인 입장에서 함께 배우고 대안을 세우는 것이 되도록 노력했다"고 준비과정을 밝혔다.

실제로 각 단대 준비주제들은 단 위에서 참가자를 미리 파악하고 이들을 본민토로 나누어 전체적인 내용과 형식에 대해 과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중앙모임에서 토론을 거쳐 주제와 시제 나갔다.

외대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이후 외대발전 투쟁의 전망을 수립하는 것이 될 이번 외대사랑학교는 16일(목) '학원자주화 운동과 외대발전', 20일(월) '외대의 현실과 외대발전 운동 방안', 23일(목) '외대발전 이렇게 함시다'라는 제목으로 3일간 계속된다.

<대학부>



망각이 아닌 청산

▲"그대는 무얼 지킬려는 겁니까?", "제가 지키고 싶은 건 저의 명예와 가족입니다." 한손으로 이마에 흘러내리는 땀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미치광 증언을 하는 미국 37대 대통령 R.N 닉슨이었다. 74년 8월, 미하원 사법위원회는 선거비용·정치자금 부정부패·탈세혐의에 그를 탄핵하기로 결정하였다. 최초의, 일기초중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명예를 남겼으나, 의회와 사법부가 그 직책을 완수했다는 역사적 교훈을 주고 있는, 이 '워터게이트 사건'은 그해 9월 8일 G.포드 대통령이 특사를 발령해 닉슨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을 안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지난 9일(목) 끝난 국정감사를 바라보면서 이 20년이 지난 해를 돌아보면, 그것도 바다 건너 다른 나라의 일이 펼쳐지는 것은 전·노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무기력함 앞에서 드는 자괴감 때문일 것이다. 선거법상의 자원이 아니라 군대를 앞세운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던 '12.12', 87년 대선 직전 '반공이대통령'의 유포수단이라는, 정권당 '선거자금'이라는 여론이 공공연하게 퍼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즘에 돈을 쓸 수 밖에 없었던 '평화의 덩어리', 기동반정으로 개혁의 벽교를 찢기 정치자금으로 이용한 '유국사익 비리', 이러한 일들이 닉슨의 선거비용, 탈세·정치자금 부정부패 혐의보다 가벼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 전직 대통령을 국회 중언단에 세우지도 못하는 것일까?

▲"과거청산"이라고 했다. 당시 권력에 대해서는 한 번도 '청산'을 해내지 못한 불운한 정치사에서, 진실이 밝혀질 새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민초들이 정권자가 몰려나오면 터트린, 쌓여왔던 분노와 설움의 용출물이었다. 그러나 국정감사에 대한 이러한 기대는 일반 국민들의 헛된 꿈이었을 뿐인가보다. 11일 동안 '반값등록금'을 구워먹은 해치군 국정감사에서 청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평화의 덩어리' 정권안보였었다는 것을 인정받았고, 유국비리의 폭대기에 전직 대통령이 있었음이 밝혀졌다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다.

남은 것은 여전히 오만하고 당당한 전권관료들을 보면서 느끼는 조롱감과 개혁을 부르짖는 '문민정권'하에서 또 다시 느끼는 허탈감이다.

▲반세기 한강에서 느끼는 허탈감은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또다시 확실한 것이 없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모자이크 대패해 준 사회를 원으로 돌리는 언론으로 끝을 낸 '5공 청산회'가 5년후 다시 그 자리에 옮겨지듯, 청산하지 못한 과거는 역사에서 끊임없이 되살아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청산해야 할 것을 어릴적 넘겨버린 것은 그 기만적인 태도부터 청산하자.

<이옥성>

지면 안내

- 3면: 용인자관기 공개입찰 무산
- 4면: 용인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농업경제
- 6면: 제165차 정기국회
- 7면: 우리것을 지키는 외대인-〈2〉
- 8면: 기획과담: 용인캠퍼스 발전 어떻게 이루어지나
- 9면: 기동취재-광주교대 이경동학생 분신소식
- 10면: 외대, 그 작은 이야기-박철수 총장편

외대 학술상·문학상 작품 모집

시멘트 바닥에서도 민들레는 피어납니다

도전하는 사람만이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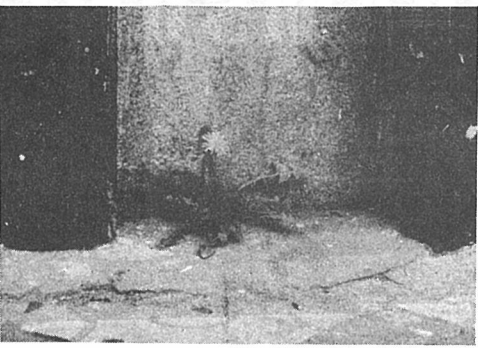
제 11회 외대학술상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3개 부문
(원고지 80매 내외)

□응모자격- 본교 재학생

□제 출 처- 외대학보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마 감 일- 11월 30일 (화)



외 대 학 보

여러분의 끊임없는 도전은
척박한 땅에 '학문'과 '문학'의
꽃을 피웁니다.

제31회 외대문학상

시(3편이상), 소설, 평론, 희곡, 번역
(원고지 70매 내외)

사설

교수사회의 투명성

요즘 장안은 공직자 재산 공개로 떠들썩하다. 그런데만 공직자의 장과 막에 한하여 온 공직자 사회가 유리할지런 투명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그런데 공직자 사회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그에 상응하는 존경을 기대하면서도 아직도 공개를 주저하는 사회가 있다. 바로 교수사회이다. 교수는 신언(身言)을 고루 갖추었다고 믿어졌었다. 그래서 우리사회에 정치적 위기가 닥칠 때마다 교수들의 시국선언문은 흥미한 정국을 수습하고 반전시키는 큰 계기가 되었다. 그것은 바로 교수사회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다. 그러나 금년 초에 대학사회를 강타한 임시부정은 교수사회도 어쩔 수 없는 고인연못이었음을 보여주었다. 학교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임시부정의 공방이 되었는가 하면 공직인 교수직분을 지키기 위한 부정입학에 이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비록 일부분이다 하더라도 교수사회의 도덕성에 흠을 내기에 충분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이러한 사건들이 다시는 거듭되지 않도록 교수사회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노력이 있었어야 하는 것이다. 학년 임용되면 특별한 사건에 연루되지 않는 한 중징계가 보장되는 풍토, 학문적으로 경쟁할 필요가 없는 무풍지대, 항상 존경받아야 하고 자신에 대한 도덕은 찰지 못하는 학사화된 권위주의, 바깥 세계에 대해서는 가장 진보주의적인 입장을 요구하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가장 보수적인 편을 붙이는 이중배반성, 무지적 학위는 문과 통과시키는 적당주의, 학위는 논리에서 고백의 성사라고 요구되는 불신주의, 이런 풍토는 우리 대학사회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도 모른다. 그래도 교수사회가 다른 사회나 집단보다 더 깨끗하다고 자위할 수도 있다. 그리고 대학사회가 상대적 논리에 의해 다른 사회와 비교되어질 수는 없다. 대학은 국가의 미래를 장조할 것은 절대적 투명성을 지닌 절대적 가치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교수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발생 원인을 문교부의 행정편의적 교육정책과 빈곤한 풍조로 무조건 돌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대학발전의 비책이 아니다. 대학발전은 대학교수 스스로가 그 바탕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제 그 시대적 사명을 의태교수사회가 실행할 때가 되었다. 위대한 임시부정이 없었던 3대 대학 중 하나이며 최근 서울 유수대학에서 일어난 가짜 학위 남발사건도 겪지 않았다. 바로 이것은 우리 의태교수사회의 도덕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의태교수사회는 대학사회의 풍토개선과 교육혁신 개혁에서 전일보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사명을 스스로 거머쥐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우리 대학은 교육이념부터 국내적 입국부터는 이념에 안주하는 대학이 아니다. 학문의 국제화, 선진화를 위하여 외대부터 먼저 대학사회에 광범한 안일무사한 풍토를 일신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태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수사회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이것은 재산의 공개가 아니라 연구업적과 강의내용의 공개이다. 강의 소견에 '평가'라는 말이 부정적이라면, 연구업적의 공개와 평가, 엄정한 교수제임용제의 도입은 무방한 교수사회, 존경받는 교수사회를 위한 선결과제이다. 이것은 캠퍼스 전체를 건강과 활력을 함께 불어넣어 줄 것이다.

제 2기 모니터 요원 모집

본보에서는 매주 발행되는 신문을 읽히고 각 과나 단대의 소식을 전달해주는 모니터요원을 모집합니다. 평소 한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학생회관 2층 기자실로 오세요.

<이문부>

학자 합의서, 우리가 지켜내자

매년 2학기가 되면 1학기 동안의 학자 합의서가 무력화하는 것을 느끼고 하였다. 매년 1학기엔 치열하게 학자합의를 전개한 그 결과물로 합의서를 제출해 내곤 하지만 여름방학이 지나고 2학기가 시작되면 언제 그런 합의가 있었나 하는 듯이 원점이 되어 있는 경우를 종종 경험했다. 특히나 교통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얼마전에는 나는 117년 과학비스를 타러다가 과학비수권을 받을 수 없다는 이치와 완강 심방이를 받았다. 분명 117년 비스는 과학비스이고 서울특별시 비스운송사업조합에서 나오는 과학비스수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승차장에서 근무하는 이치라는 그것을 승용하면 비스기사가 비스회사에 수수료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승차장 밖에서 구입한 승차권을 이용하라는 이유를 들어 승차권을 받아도 안된다고 하였다.

비트다. 결국 나는 과학비스 2대를 보내고 1시간의 실험이 끝난 과학비수권을 내고 과학비스에 올랐다.

이나 내가 승차장 밖에에서 표를 구입하여 갔다면 1시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게 지리한 학교수의 운송대로 따르라면 한다면 끝내 교통문제는 해결될 수 없을 것이고 자수학원의 풍도 요란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생각이 끝까지 이치라는 여지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지금 용인캠퍼스의 교통문제를 생각하기에 따라선 매우 발전했고 좋아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안에 한 가지 결점도 남아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117년 과학비스만 하더라도 작년에 비스회사에서 수수료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승차장 밖에서 구입한 승차권을 이용하라는 이유를 들어 승차권을 받아도 안된다고 하였다.

학교 아르신네들 차를 동서일에 투입합세

-AF 이발-

자폭들은 참말로 주차장이 넓을텐데.

-외발이-

교내출입을 허용하는 스티커를 붙입니다.

-EP-

113년 과학비스를 왕선으로

-M, 김-

주차금지 구역에 지정합니다.

-외사모-

분당선 철로를 달리 늘려서 왕선까지 이어지.

-불타는 청춘-

대통령 될 때까지 기다려라. 서울에서 왕선까지 직통 고속도로 하나 만들지.

-차기 대통령-

주차문제 해결 못하면 넓은 곳으로 학교를 옮겨야지, 자폭들 말아...

-외발이-

왕선을 그대로 들어서 종로바다에 정박하고 들뜬다.

-말뚱이-

대학에서 행정직만 당면하게되는 것 아니?

-P, T, P-

학교에서 차를 한대씩 주는 것 어때? 그리고 주차장도 대방 크게 만들.

-티타-

신도림에도 버스노선 만들어.

-도림이-

아쉬워만 자취해라.

-블라썸-

주제: 하내 교통문제, 이렇게 해결합니다.

아쉬워만 자취해라.

-티타-

신도림에도 버스노선 만들어.

-도림이-

아쉬워만 자취해라.

-블라썸-

주제: 하내 교통문제, 이렇게 해결합니다.

아쉬워만 자취해라.

-티타-

신도림에도 버스노선 만들어.

-도림이-

아쉬워만 자취해라.

-블라썸-

주제: 하내 교통문제, 이렇게 해결합니다.

아쉬워만 자취해라.

-티타-

신도림에도 버스노선 만들어.

-도림이-

아쉬워만 자취해라.

-블라썸-

주제: 하내 교통문제, 이렇게 해결합니다.

아쉬워만 자취해라.

-티타-

신도림에도 버스노선 만들어.

-도림이-

아쉬워만 자취해라.

-블라썸-

주제: 하내 교통문제, 이렇게 해결합니다.

아쉬워만 자취해라.

-티타-

신도림에도 버스노선 만들어.

-도림이-

아쉬워만 자취해라.

-블라썸-

주제: 하내 교통문제, 이렇게 해결합니다.

아쉬워만 자취해라.

-티타-

신도림에도 버스노선 만들어.

-도림이-

아쉬워만 자취해라.

-블라썸-

주제: 하내 교통문제, 이렇게 해결합니다.

아쉬워만 자취해라.

-티타-

신도림에도 버스노선 만들어.

-도림이-

아쉬워만 자취해라.

-블라썸-

주제: 하내 교통문제, 이렇게 해결합니다.

아쉬워만 자취해라.

-티타-

신도림에도 버스노선 만들어.

-도림이-

아쉬워만 자취해라.

-블라썸-

주제: 하내 교통문제, 이렇게 해결합니다.

아쉬워만 자취해라.

-티타-

신도림에도 버스노선 만들어.

-도림이-

아쉬워만 자취해라.

-블라썸-

주제: 하내 교통문제, 이렇게 해결합니다.

아쉬워만 자취해라.

흡산의 소리

'우리'라는 의식으로 외대발전을

서양의 경우중에는 '발전'의 추종자들이 비로 발전의 적이 되었다. 그 예로 마르크스의 초기 사회주의의 이념은 진정 민중을 근간으로 하는 인간 본연의 심성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추종자들은 그들의 상향적에 맞도록 그의 이념을 도용, 오용하여 왔고 마침내 유대없는 인간 말살의 새로운 이론을 탄생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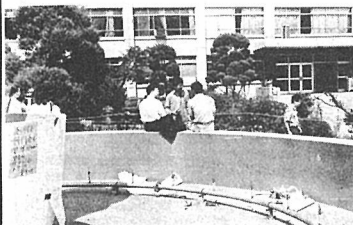
요즘 학교 밖에서 학사와 한 의사 사이에 파우지일이 한창이듯이 학교 내에선 그동안 너무나 오랜동안 누적이 온 학교의 학생들의 불신이 끝까지 지기 직전까지 이르렀다. 학교측이든 학생측이든 모두가 출발은 좀 더 발전된 미래, 그리고 좀 더 희망찬 외대의 건설을 위해 시작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수많은 원초적인 의미와 기대를 잃어버린 듯하여 안타까움을 느끼게 해준다. 실제로 좋은 취지 속에 출발한 어학연구단 초기 학생들과 학교측과의 마찰로 인하여 컴퓨터 특강이 지연되었고 또 이로 인하여 우리 학생들은 물론 대학교 학생들에게 있어 양자간 싸움에 대해 눈치만 쬔다면 답해야 하는 난처한 경우를 당해야 했다. 현실의 사정에서 있어서도 양측은 결코 한치의 양보없이 마치 서로 서로를 존재시켜서는 안 되는 양자간의 주장을 고집해 나가고 있다.

공통의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중요한 구상체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일반학생들이 수많은 본체적인 학교측과 학생회나 소위 학생들을 대립하는 단체 모두는 수메의 바위에 해당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어느 한쪽이 무시되거나 무시당할 수 있는 수메는 결코 더 나날 수가 없을 것이다.

자, 우리 이제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의 존재를 위해 온 힘을 쏟도록 하자. 결코 우리는 더 나날 수가 없을 것이다.

김철민 <서학> 유고어4>

독자 사진



본교에 하나밖에 없는 본수가 쓰레기통 취급을 받고있다.

김수성 <서학> 이태리1>

국민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기업-삼성

삼성은 「세계 1급품질」을 위한 혁신을 시작했습니다.

삼성은 국제화시대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21세기에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으로 「품질 최우선 경영」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지금 15만 삼성인은 세계 초일류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과감하게 혁신하고 있습니다.

SAMSUNG
QUALITY

「품질 최우선 경영, 실천을 위한 삼성인의 혁신방안」

- 초기 출퇴근 및 실시
-근로의 업무환경에서 과한 7시 출근, 1시 퇴근으로 업무의 질과 효율을 높이는 초원리 경영.
- 인력 확충과 근무제도
-현장을 아는 경영, 고객과 호흡하는 경영의 실현을 위해 삼성의 전인력 주4회 휴식 근무.
- 라인 스텝제도
-삼성의 제품은 삼성의 얼굴이라는 각오로 불량방지 전 생산라인 정지권 불합용 제.
- 교육 회의
-현장에 양해는 보고서와 함께 모든 회의는 교육으로 대체하여 KNOW-HOW 교육.
- 중소기업 지원
-대기업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중소기업 동향조사, 인적, 기술적 지원과 자금지원.

SAMSUNG
삼성

북의 밀·남의 쌀, 모자람을 채우는 조화

통일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농업경제 변화

남한농업의 총체적 위기속에서 그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 그 핵심으로서의 통일농업에 대한 인식은 전세 동을 비롯한 농업 생산자 단체로부터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정보와 인력 교류가 차단되고 있는 조선, 연구역량이 취약한 현재에서 그 검토는 시론적인 것에 머무르고 있다. 여기에서는 학계와 생산자 단체에서의 논의를 재정리하는 정도에서만 밝히기로 한다.

분단으로 인한 남북농업 수반의 유사

남북이 조화롭게 발전하면 우리 농업은 분단으로 그 발전이 차단당했다.

남한의 농작물 부분에서는 곡류에서 쌀을 제외하면 지급율이 96%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급을 하고 있는 쌀도 시장개방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육류 또한 쇠고기의 최소수급이 이미 절반을 넘고 있고 돼지고기 가공품도 역시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닭고기는 우리 품종은 건 내 없고 외국종종이 속성으로 이면식으로 대량 사육되고 있다. 화훼류에서도 중국산이 60% 이상 사용되고 있다. 농기계 등 생산수단의 의존현상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컴퓨터 등에 대한, 각종 등의 우리 상품에 대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비료, 농약기술은 완전히 미국에 매수되어 농민과 도시소비자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고도 또한 작은 것이 아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중국 미국과 맞서야 했던 정치상황이나 경제에서 지립이라는 국가 지도이념에

근거하여 농업의 지원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왔다. 산을 개간하여 대단위 곡작지대를 설립하고 한우나 돼지, 닭 등에서 우리 종종의 유적발전을 위한 노력, 인력과 단련된 작물생산자, 농업기계화에서 세계 일류로의 발전, 세계 제일의 사비양과 산양의 방목의 성과, 90%의 식량자급 등 많은 성과를 이뤄 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의 농업기술혁명의 4가지 과정을 완연하게 밟고 나온 성과였다.

그러나 이 과정은 민족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자원과 인력투와 동가종 노력 남비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일제 말 북한의 농업이란 평양 개성 등 대도시 주변의 화채류와 인산, 목화 등의 작작 정도의 것이었으며 심지어는 화전이 존재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극악한 농경상황에서의 발전이란 통일을 전제로 한다면 (이북에서만 국한되어) 그 성과를 반드시 얻지 못할 것이다. 대도시의 농업에 의존하고 있는 기본곡류를 자급할 수 있으며 육류는 수입품에서 자급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단순병렬적인 결함이 아니라 기구, 종도 등 지역적 특성과 공급소비관계, 도시와 공업과의 연계를 충분히 고려한 효과적 배치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

농기계와 비료, 농약 등 생산자재는 1백% 이상의 대단위 농업에 맞는 미국식의 것이 아니라 구공작대가 많고 소규모 우리 농업의 특성에 맞는 것으로 대체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 3세계에 대한 수출용으로 강력하여 작물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병독성의 작물이 아니라 우리의 기후후후도와 토질, 인체에 맞는 농약과 비료의 사용 또한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외에도 작기작적, 적시작적의 원칙을 확립한 이북의 주세농법이

통일농업의 구상

농업생산물에서 크게 쌀, 보리, 밀, 콩 등 기본곡류와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의 기본육류와 무, 배추, 오이, 고추 등의 기본채소, 사과와 배 등의 기본과일은 민족의 기초적 식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것이다.

남과 북이 합의하면 한다면 그 결과는 고무적인 것이다. 북측은 쌀과 기본채소, 기본과일을 얻을 수 있을

달성한 성과, 즉 구공작대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불모지를 목축지대로 개간하여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수리사업과 토목공사, 우리 밀과 콩에 맞는 우리 종자의 개량과 발전 또한 이남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훌륭한 재료가 된다.

이북의 지배적인 농업소유형태는 집단농장으로 알려진 협동적 소유와 국유화로 알려진 인민적 소유인데 비해 이남의 소유형태는 생산수단의 분산적, 개인적 소유이며 아직도 고유의 소작료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다. 이북은 소유형태의 활용을 더욱 효율화하고 이남은 개인적 소유, 반분적 소유로부터 비롯된 과

한에서 미국의 안정적 경제력 이권의 확보이며 나아가 정치적 지배권의 토대를 굳건히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미국의 의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 전략을 허용하여 농업의 생산자본이 그네들의 수중에 떨어진 다음에는 농업부흥을 기약할 수 없으며 엄청난 화생을 치른 다음에야 통일농업은 가능할 것이다.

전정으로 통일을 대비하는 정책이라 한다면 쌀개방을 공론화시키고 외세와의 경쟁무대에 출몰 것이 아니라 통일조국에서는 작작하고 이 변한 쌀생산기반을 확충하고 NTC품목 등 기본곡류의 생산량을

남, 수입에서 자급·농업비중 확대·농민부흥 북, 쌀 확충·농업에 투자된 자원 타부문 전환 가능



쌀수입개방 일익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남북의 농업교류·협력을 필수적이다. <사진: 말>

것이며, 이에 대한 남북적 투자를 그만둘 수 없다. 남측은 보리, 밀, 콩 등 곡류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기본곡류를 자급할 수 있으며 육류는 수입품에서 자급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단순병렬적인 결함이 아니라 기구, 종도 등 지역적 특성과 공급소비관계, 도시와 공업과의 연계를 충분히 고려한 효과적 배치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

농기계와 비료, 농약 등 생산자재는 1백% 이상의 대단위 농업에 맞는 미국식의 것이 아니라 구공작대가 많고 소규모 우리 농업의 특성에 맞는 것으로 대체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 3세계에 대한 수출용으로 강력하여 작물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병독성의 작물이 아니라 우리의 기후후후도와 토질, 인체에 맞는 농약과 비료의 사용 또한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외에도 작기작적, 적시작적의 원칙을 확립한 이북의 주세농법이

소농체제를 파괴하고 가족농에 기초한 협업을 실현해야 하는 과제가 나고 있다. 통일조국의 농업소유형태는 이러한 방향과 민족농업의 융합발전이라는 원칙에서 서로의 장단점을 충분히 소화하고 조화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통일농업 실현을 위한 당면과제

첫째, 미국의 농축산물 개방일익에 대응하여 최소한의 농업지립기반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미국의 남한에 대한 전략적 농업정책, 무역정책은 수입개방으로 널리 알려진 요즘의 일관은 아니다. PL480으로 대표되는 원조와 의존의 수출수도형 공업과 화력을 추진하기 위한 저농산물 가격정책을 거쳐, 80년대에는 수입개방을 통한 개방작물에 대한 공적과 자급농산물로의 대체, 90년대 UR 등을 활용하여 쌀개방을 목표로 하는 한국농업에 대한 총체적 지배로 발전해 온 것이 그 일련의 과정이었다.

이것이 목표하고 있는 바는 남

남과 남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둘째, 남북한 농업농민교류의 활성화를 다그쳐 나가는 것이다. 농업교류는 생산수단·생산물·농업연구 성과 등 모두를 교류하는 것이어야 하며, 민족농업의 부흥이라는 관점에서 협력하는 것이어야 한다. 당면에서는 미국의 쌀개방일익을 전 민족적 단련부터 해치나간다는 관점에서 남북한 협력을 반드시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도 각자의 수급과 소비를 고려하여 계약재배를 실현하여 통일농업의 생산적 토대를 닦아나가는 과정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아닐로 농업분도지에서 식량자급을 90%를 만들어낸 이북농민, 암울한 위기상황에서도 농사가 계속되어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이남농민, 바로 우리민족의 농사꾼의 지혜와 힘일 것이다.

정 미 경
<민족통일연구소 연구원>

통일을 바라보는 사람들

전능 조동위

실무국장

박장군씨를 만나



"우리가 주인되는 자주, 우리 동네 안에서 해결되는 자립, 이것의 열쇠는 통일이어!"

89년 고추파동으로 생계를 하다가 춘천교도소에서 2년간 수감되었을 때 통일에 대한 많은 얘기를 듣고 통일의 선봉장이 되었다고 절심한 박장군씨.

"올해는 논이나 파수원이나 모두 풍작이었어. 제1만 올해도 밭짓기는 금이었어." 올 8월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 위원의 실무국장의 막중한 책임을 맡은 그의 지난 역사 신세한탄으로 얘기를 시작하는 평범한 농민 중의 한사람이다.

▲농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기는 어느정도 인가?
통일이 되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농민들은 뭇이렇게 기뻐할 것이다. 농민들이 통일운동들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미국의 식민지 전략에 우리 농업을 살리는 길은 통일뿐이다"라는 각오로 모두들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농민들은 통일이 되면 좋나?
당연하지! 수입자유개방이 되자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수입하는 이 시기에 농민은 이제 설움이 없다. 우리가 하루 나이가 할 길은 민족자주·자립농업을 건설하는 것이야. 남의 쌀·기름, 곡의 반·생선까지 합쳐서라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지.

▲농사 지으실라니 통일운동은 하시리라 안 하든가요?
91년 경회대에서 반민족 대회를 할 때 국토수호대를 꾸렸어. 그때 경회대를 둘러싼 전쟁을 듣고 대학교 내에 1만명의 사람들이 들이치는 정말 신났어. 반민족을 향해 농약을 쳐야하고 피도 흘려야하고 농민은 가장 바쁜 때야. 하지만 통일이 남의 일인가? 일할지도 해야지.

▲앞으로 사업은 어떻게 하심 계획이신지?
반민족 대회는 모든 대중의 축제가 되어야 해. 올 반민족회는 이전보다 나아진 했지만 아직도 청년학생 중심으로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 통일은 정부나 통일원이 갖다주는 게 아니라 이방 7천만 국민 모두의 문제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해. 그래서 나는 현 농민들에게 통일을 일깨우는 교양자립부터 시작해서 농민들의 회관을 모으고 많은 통일 일꾼을 발굴하여 좀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농민회가 구성되도록 노력할 생각이야. 아마 내년에는 전국에서 통일을 염원하는 농민이 너무 많이 모여서 참의원운동장에서 반민족을 개려해야 할거야.

▲앞으로의 생활은 어떻게 해나갈 건지?
자급은 이것저것 어디까지나 통일을 얘기 안하는 사람이 없어. 심지어는 감정상, 노태우까지도 통일을 틀어쥐고. 그러면 통일은 중요하니까! 이제는 민간분부의 통일 사업이 보장되고 활성화되어야 해. 그 일을 너무도 조금씩 실현해 나가야 되지.

<김민복 기자>

글 쓰는 차례

통일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통일을 바라보는 사람들

1. 정치·군사 부문
2. 산업경제 부문
3. 농업경제 부문
4. 교육·과학·사회복지 부문

노동자
기업가
농민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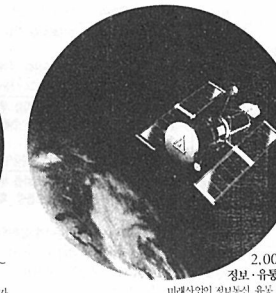
동양그룹이 점점 더 젊어지고 있습니다



50년대 ~ 국가간산업
국가재건의 주역이 되었던 수출산업과 수출산업으로서 한걸음 더 나아간 수출산업으로서 중요한 몫을 담당했습니다.



80년대 ~ 종합금융산업
제2금융권의 핵심분야인 증권, 은행, 보험 등을 가진 종합금융을 중심으로 경제개발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2,000년대 ~ 정보·유통·서비스산업
미래산업인 정보산업, 유통, 서비스업 등으로 2차산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산업에서 미래정보산업으로— 동양·금융·물류·제조·서비스업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에 걸맞게 다가오는 21세기를 걸음 걸음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50년대 우리의 경제현황에서 볼 때 80년대 산업·유통·서비스업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고, 80년대에는 이렇듯 종합금융산업의 개척을 눈앞에 맞았던 것입니다. 이제 바로 앞을 내다보는 21세기— 우리의 미래는 정보, 유통, 서비스산업으로 열려 있습니다. 동양·금융·이제 이러한 미래산업에 투자해 봅시다. 영원히 젊은 동양·금융,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동양증권·동양저축·동양투자금융·동양생명보험·오리프리드레이·동양매직·동양예술품·동양마트·동양정밀투자·동양투자자문·동양선물·동양정보통신·동양상업계·동양팩토링·서남재단

□일본의 정치·군사 대국화를 바라보며

뻔쳐오는 일본의 검은손, 방패는 남북협력

시사논단

김 형 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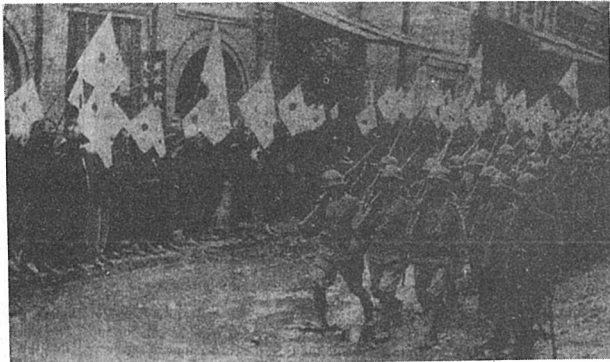
<민족민주운동연구소 연구원>

일본의 변화, 힘의 논리에 근
거한 정치대국화 과정

과거의 전쟁에 대한 책임이
반성이 이루어지는 일본 정권 교체
의 변화속에서 동전의 양면처럼 뒤
어 등장하는 일본의 재부흥과
속에서 변화하지 않는 일본의 참모
습이다. 과거의 전쟁에 대한 책임이
라는 골목에서 벗어나 새로운 일본의
의 역할, 경제의 영향력에 걸맞는
정치적 역할의 수행을 하는 20세기
초의 일본제국주의를 보는 오카
함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새로운 역할’의 의미

일본 연립정권의 실세라 부르는
오자와 신생당 대표가나사나
와 수장은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역할을 강조한다. 여기서 새로운
역할은 경제적 차원이 아닌 정치
적 군사적 차원의 역할이다. 이미
나카세에 수상 이후 일본의 신보수
주의가 표방되었던 경제적 차원에
조종하는 군사적 역할의 차원이 보



다시 재현된지도 모를 과거 일본 군사대국화의 모습

사각을 공약으로 내세웠음에도 불
구하고 여전히 지역분쟁에 대한
정치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
러나 레이안-부시 행정부 시절보다
속속한 국방예산은 필연적으로 미
국의 세계전략에 충실해 따르는 지
역 강대국이나, 지역분쟁 당사자의
화해를 전제로 한다. 즉, 축소된 미
국의 군사력에 불구하고 지역 강
대국의 힘의 활용을 통하여 지역분
쟁에서 승리하거나 외교적 차원의
노력으로 지역분쟁의 원인을 소멸
시키면서 궁극적으로 축소된 국방
예산 속에서도 과거 레이안-부시 정
권 시절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

중동의 평화분위기와 전혀 다른

소가와 정권 이후 일본의 정권은 과
거 전쟁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났으
나 평화헌법 수호를 주장해 온 사회
당 역시 변화된 정세에 있어 연립
정권에 투항하리라고 했다. 이제 일본
의 정치 군사적 대국화는 단연 시
간 문제의 차원이 될 것이다. 다만
연화 가치의 급격한 상승과 그동안
일본 경제를 뒷받침했던 부흥산 가
력이 하락 국면이 접어들면서 일본
경제가 위기국면으로 들어가고 연
립정권의 모든 관심이 일단의 경제
문제로 쏠리면서 아직은 구체적인
방향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후
정권은 경제적 위기 국면이 전쟁의
의 영향력 아래 편입되는 길 밖에
없다. 이제 본다는 생존을 저

자친으로 받을 수 있는 나리가 바

로 남과 북으로 일본의 정치·군사
적 대국화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새로 나와 복다.

남과 북이 계속 긴장과 갈등의 구
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남북은
각자 19세기 말의 조선을 남북으로
으로 전파될 수 있다. 이렇게 주한
미군의 전략적 기능이 약화되면 남
한은 정치·군사적으로 미국과 일
본의 지배 분할의 대상으로 전락한
다. 북한 역시 미국과 일본의 힘의
압력으로 패배적인 괴뢰화나 중국
의 영향력 아래 편입되는 길 밖에
없다. 이제 본다는 생존을 저



전봉준(1855~1890)은 모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를 기리는 많
은 사람들은 매서운 눈빛을 한 사진 속
의 ‘녹두장군’을 떠올릴 것이다.
‘상투를 쓴 활활이진 머리, 빛나면서
도 매서운 눈동자, 콧수염 아래의 붉
은 입...’

이러한 전봉준의 모습을 보며 ‘조선시대 선비’를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전봉준은 일반인이었다. 더 자세히 말하
면 조선정국에 신봉의 동요와 의회의 세도정치로 판교전술이 불가
능했던, ‘봉준지식인화’한 체제외적 양반이었던 것이다.

간오(동학) 농민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학문하는 것을 직업
으로 삼았고 훈장도 못가지 했던 그가 대단한 충절을 들은 농민들의
지도자로 나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1894년의 갑오농민전쟁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안으로는 조선왕조
의 봉건체제를 무너뜨리고 밖으로는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겠다는 반
봉진 반외세의 기치를 높이 든 농민전쟁이었다. ‘민란의 시대’라 일컬
어지는 19세기, 봉건체제의 가렴주구(苛嚴誅求)와 일본제국주의자
들의 침략으로 일복했던 그 시대에 사회의 비리와 모순을 몸소 겪으며
전봉준은 성장하였다. 탐관오리의 학정에 견디다 못해 충절을 농기를
들고 하나 둘 모이기를 시작한 농민들은 전봉준에게 그들의 지도자
로 되어 줄 것을 요청했다. 어떻게 해서든 이 모순된 사회를 바꾸어
주고 싶었다. 전봉준은 농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전봉준은 농민들이었으며, 이후부터 갑오농민전
쟁의 본체가 됐다. “고부민란은 전라도 일대의 탐관오리 무리를
몰아내고 아울러 나라의 백관매직자를 몰아내고자 한 것이었다”라는



녹두장군
전봉준
반봉진·반외세의 죽창

전봉준의 말을 통해 고부민란이 단순히 ‘민란’의 성격을 띤 것이 아니라
충정전열의 촉출까지 고려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의 활동 전부를 거친 전봉준은 의병과 의화(義和)계열, 일본
군의 내정간섭에 대한 반봉진 반외세의 의병을 창설할 때 ‘동학사상’과
관련된 전봉준의 사상을 엿볼 수 있다. 조선정국의 지배층은 갑오농
민전쟁을 ‘동학난’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전봉준은 갑오농민전
쟁의 지도자였으며, 그러나 후대의 역사학자는 이를 반봉진 반외세의
지도에 농민이 참여한 일어난 ‘동학농민전쟁’으로 이해하고 있다.
전봉준이 받아들이던 동학사상은 ‘보국민권’을 그 생원으로 하는
것으로 ‘안으로는 포악한 권리의 욕을 배고 밖으로는 황포한 무리를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즉, 반봉진·반외세의 패가 계몽적으로
합당한 사상이었다. 일본군과 관군에 대한 농민군의 재봉진이 실패
하자 이후 전봉준은 체포되어 마흔 한살의 나이에 사형을 선고받
았다. 단두대에 선 전봉준에게 법관이 유언을 묻자 그는 “다른 말은
없다. 나를 죽일때도 창로 대가리에서 목을 베고 오고가는 사람들에게
게 내 죄를 꾸며주기 마라”고 대답했다. 전봉준은 죽는 그 순간까
지도 그의 뜻을 굽히지 않았던 것이다.

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난 지 140년이 가까운 오늘, 전봉준은 농민들
의 고통과 압박을 반봉진·반외세의 의병으로 승화시킨 진정한 민족의
지도자로 기억되고 있다. 이 시대는 전봉준은 장군들은 또 하나
를 가슴에 새겨야 한다. 그것은 아직도 외세의 폭압적인 침략을 조
의 현실이다. 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진정한 민족의 자주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녹두장군의 후손인 우리 청년들의 임무가 아닐까?

황 호 순 <사범·한국 4>

세계 평화속의 동북아 긴장, 미·일 세력 분할 원인 남북의 정치·경제적 협력으로 일본 군사대국화 막아내야

다 세련된 모습으로 재등장한 것이
다. 오히려 2차대전의 골목에서 벗
어난 수 없던 지만당 정권보다 더
없는 ‘국제적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더욱이 과거 지만당 정권시
강한 야당이었던 사회당의 견제
조차 없었던 상황에서 일본의 새로
은 국제적 역할의 지평은 직접적인
군사적 영향력에 따른 정치적 영향
을 찾아나갈 것이다. 이번 9월에 10
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 공·해·공
군 작위대의 합동훈련이 일어난다
는 사실 역시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변화된 미국의 세계전략과 일
본의 힘보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가 국방비

동북아의 긴장은 미국의 전략변
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상
대적으로 여전히 강력한 힘으로 북한
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여 지역분
쟁의 원인을 힘의 경제력으로 억
누르려한다. 그러나 과거와 다른 이
지역의 힘의 공백은 정치대국을 지
향하는 일본이 담당한다. 최근 미
국의 북한에 대한 압력과 일본이 북한
의 노동 1호에 대한 위협을 부각시
키는 것은 동북아에서 일본의 군사
력에 의존한 질서체제의 파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카세에 정권 이후부터 일본의
신보수주의 정권이 나타난 이래로
등장한 것은 과거 일본의 침략을 받
은 바 있던 주한국의 우리와 제
일 남북의 어려움은 보여준다. 일본
의 대국화 속에서 가장 큰 영향을

놓칠 수 없는 남북의 긴장완화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를 19세기 말의 그것과 비교하는 하
자가 많다. 타당한 분석이다. 소련
의 붕괴 이후 동북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은 대단히 축소되고 중국 역
시 경제개혁의 한복판에 서 있으면
서 국내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과의 무역마찰에서
일본의 정치대국화를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거부권 없는
UN의 상임이사국 추진 등 일본의
국제사회의 역할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19세기 말의 국제정
세와 같은 20세기 말의 동북아 정세
는 곧 남북의 어려움은 보여준다. 일본
의 대국화 속에서 가장 큰 영향을

해하는 구체적인 장면에 등장한 것

일본의 대국화 과정에서 절제
적이라는 19세기 말의 정세는 우리에
게 매우 단순한 선례를 제공하고 있
다. 물론이다. 그러나 이 단순한
선례 안에서 대립과 갈등이 우세하
는 것은 해피로 끝났던 19세기 말
이후의 여사가 여전히 20세기 말까
지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시차제’는 아침 출근시간
뒤인 러시아워(rush hour)
대표되는 교통혼잡을 해소하
고 88년 처음 제정되었다.

10부제 운행, 자가용 합제다 등 점검할 수 없이 혼란스런
교통혼잡을 해결하려는 노력에 계속 시행되고는 있으나 근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시차제는 아침 9시로 고정된 직장 출근시간을 각 직장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7~8시대의 혼잡을 완화시키는 취지
로 제정되었고 이미 그 타당성 또한 검증되었다.

한국의 교통혼잡은 많은 차량을 소화해내기 못하는 도로설
계 때문에 발생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바로 이 제도다.

현재 영국 등 유럽 여러나라와 미국은 이미 이 제도를 실시
하고 있으며 어느정도 성과도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하루하루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제7회 법대 학술제

9월21일 사회과학회 심포지움
『통일방안의 비교·고찰』(소강당)

9월22일 민사법학회 심포지움
『실거래에 있어서 보증에 대한 법적
고찰』(소강당)

9월23일 공법학회 헌법모의재판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대강당)

9월24일 형사법학회 형사모의재판
『성행위에 의한 AIDS 감염에 대한
형법적 고찰』(대강당)

9월25일 법대인의 밤

주최: 법과대학 학생회
후원: 나래이동통신

우편주문판매안내

- 전국 우체국을 연결하여 생산지에서
직접 배달하여 드립니다.
- 생산지 가격에 우송료만 추가함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믿을 수 있는 상품입
니다.
- 전국여러나 배달이 가능하므로 명절,
생일, 출산등의 선물로도 적합합니다.
- 선물로 보내실 경우 축하카드를 이용
하실수 있으며, 배달내용을 보내신
분에게 염서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주문 방법

- 우체국 창구에 비치된 주문 신청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문 신청후 약 3~4일후에 상품을 받
으실 수 있습니다.
(단, 연말연시, 명절등에는 우편물이
급증하므로 일주일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내전화 4435 또는 963-8380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
습니다.

한국의국어대학교 우체국장

졸업예정자 추가 촬영

15일: 동양어대, 인문대
16일: 서양어대
17일: 법대, 사범대, 정책과학대,
상경대
20일: 동양학대, 동구어대
21일: 서양학대, 사회대, 자연대

* 해당 단대별 일시 엄수바랍니다.
* 촬영시간: 오전 9시~오후 5시
* 3차 추가촬영은 없으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 장 소: 아트 스튜디오(명동역,
세종호텔 뒤 757-8381)

졸업준비위원회

□ 제 165차 정기국회 전망에 대해

개혁의 첫장으로 기록돼야 할 정기국회

정계모양 정비 시급

지난 10일(금) 정기국회가 예년과는 달리 조용하게 개최되었다. 국회나 정당들이 예산공개 파문에 정신이 없는 가운데 정기국회 개최를 거론하거나 민방한 기근도 없지 않았으나 이번 정기국회가 '말로 이 나리의 정치 양대나 나리의 발전과도 직결된 중대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14대 국회는 출범 첫해에는 대통령 선거전으로 급변 들어서는 사정 과 개혁 강요로 지기 성격을 형성하지 못했다.

올해 정기국회의 최대 관심사는 정치개혁 여부이다. 정치가 다시 살어나 국회와 정부간에, 여야간에 견제와 균형, 비판과 토론이 전개되느냐, 아니면 지난 6개월처럼 정부의 일선적 독주로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지금 제헌절과 함께 정계모양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혁의 제도화 필요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에는 정치개혁이란 중대한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제헌절과 함께 정치가 다시 살어나 국회와 정부간에, 여야간에 견제와 균형, 비판과 토론이 전개되느냐, 아니면 지난 6개월처럼 정부의 일선적 독주로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런 개혁의 제도화 할 수 있는 각종 개혁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것이다. 돈 지게 드는 선거제와 정당제도와 유성적인 정치자금법을 양립하고 하도록

있는 것은 제도에 따른 개혁추진이 라는 명목의 필요성에도 제도화를 담담할 주체와 사회분위기 조성과 변화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는 데서 오는 우려가 커져 있다.

지난 6개월간 진행된 부패척결, 사정개혁 등 과거지향적인 개혁은 그 성격과 효율성 대등한 한 사람의 의지와 역량에 의존해서도 가능했지 만 법과 제도에 의한 2단계 개혁은 정부조직과 국회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지난 7일 실시된 재산 공개로 부도덕한 공직자에 대한 제 판여론이 형성되고 있고 3개월 동안 재산공개가 진행되고 있는 기간에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개혁의 제도화 를 마무리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대안당은 이번 정기국 회에서 예년 평균의 3배가 넘는 정 부예산 1백 80억원을 차질없이 처리 하고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 계법도 선거구 조정 등 여야간에 정 계개혁을 위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개정해 정치개혁을 제도 화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개혁입법의 실질적인 성 과를 확보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정 치개혁 과제를 청산하며 국민부담 경감과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강한 정치개혁 의지

한편 민주당이 마련한 선거법으 비롯한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3개 정치관계법 개정방안은 정치개혁에 상당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선거법은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 선거법,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법 선거법 등 4개 법을 통합해 '공직자선 거 및 부정부패방지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보장할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의 입법이 그것이다.

이러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정기 국회에서는 94년 나라살림의 청사진 이 되어야 하는, 43조원에 달하는 예산안 처리와 개혁의 제도화를 위 한 개혁입법의 마련이 주요한 안건 으로 부각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삼 장관은 입각중 첫번째 맞 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도개혁을 완성하느냐 못하느냐가 개혁의 성패 를 좌우한다고 보고있다.

개혁을 주도하는 쪽이 이처럼 이 번 정기국회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제도에 따른 개혁추진이 라는 명목의 필요성에도 제도화를 담담할 주체와 사회분위기 조성과 변화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는 데서 오는 우려가 커져 있다.

이때 대안당은 이번 정기국 회에서 예년 평균의 3배가 넘는 정 부예산 1백 80억원을 차질없이 처리 하고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 계법도 선거구 조정 등 여야간에 정 계개혁을 위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개정해 정치개혁을 제도 화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개혁입법의 실질적인 성 과를 확보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정 치개혁 과제를 청산하며 국민부담 경감과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강한 정치개혁 의지

한편 민주당이 마련한 선거법으 비롯한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3개 정치관계법 개정방안은 정치개혁에 상당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선거법은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 선거법,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법 선거법 등 4개 법을 통합해 '공직자선 거 및 부정부패방지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선거관리와 규제의 일관성 확보와 선거부정 방지에 최대의점을 두는 것으로 내 있다. '말은 좋고 돈은

우선은 이치'라는 일련 개혁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개혁입법의 제언과 입법과정을 통해 개혁의 제도화를 담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자칫 '공공'의 도망을 갖춰 제도개혁을 가로막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 개혁은 일정부 부작용을 수 반하고 이로 인해 개혁을 잃는 지 항세력이 시간이 흐르면서 개혁을 수반해 없어져 정치 개혁을 제도화하지 않는 한 부작용의 상승 효과와 저항세력의 조직적인 연대로 개혁이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우선은 이치'라는 일련 개혁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개혁입법의 제언과 입법과정을 통해 개혁의 제도화를 담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자칫 '공공'의 도망을 갖춰 제도개혁을 가로막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 개혁은 일정부 부작용을 수 반하고 이로 인해 개혁을 잃는 지 항세력이 시간이 흐르면서 개혁을 수반해 없어져 정치 개혁을 제도화하지 않는 한 부작용의 상승 효과와 저항세력의 조직적인 연대로 개혁이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때 대안당은 이번 정기국 회에서 예년 평균의 3배가 넘는 정 부예산 1백 80억원을 차질없이 처리 하고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 계법도 선거구 조정 등 여야간에 정 계개혁을 위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개정해 정치개혁을 제도 화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개혁입법의 실질적인 성 과를 확보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정 치개혁 과제를 청산하며 국민부담 경감과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강한 정치개혁 의지

한편 민주당이 마련한 선거법으 비롯한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3개 정치관계법 개정방안은 정치개혁에 상당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선거법은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 선거법,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법 선거법 등 4개 법을 통합해 '공직자선 거 및 부정부패방지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선거관리와 규제의 일관성 확보와 선거부정 방지에 최대의점을 두는 것으로 내 있다. '말은 좋고 돈은

우선은 이치'라는 일련 개혁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개혁입법의 제언과 입법과정을 통해 개혁의 제도화를 담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자칫 '공공'의 도망을 갖춰 제도개혁을 가로막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 개혁은 일정부 부작용을 수 반하고 이로 인해 개혁을 잃는 지 항세력이 시간이 흐르면서 개혁을 수반해 없어져 정치 개혁을 제도화하지 않는 한 부작용의 상승 효과와 저항세력의 조직적인 연대로 개혁이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때 대안당은 이번 정기국 회에서 예년 평균의 3배가 넘는 정 부예산 1백 80억원을 차질없이 처리 하고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 계법도 선거구 조정 등 여야간에 정 계개혁을 위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개정해 정치개혁을 제도 화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0일(금) 제165차 정기국회가 개회됐다 <사진: 말>

말은 다라는 전체 위에 범정선거비용 의 2배(총 1 이상 금액을 하회하게 보고, 또는 초과지출했을 때는 당선 무효로 하기로 한 것이다. 금품받은 선거비용반납자는 일반 유권자와 함께 범법죄로 처벌하는 한편, 선거관계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10년간 피선거권과 공무원직을 상실하도록 했다. 앞으로 민주당과 합당을 통해 정치관계법안은 손질되었지만 민 지당의 개정방향은 여타까지의 여당 태도와는 사뭇 다르다는 평가를 받 는 것 같다. 김영삼 대통령이 각종 선거에서 가장 안인한다는 영국

상 대통령이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 을 받지 않았다고 한 약속도 돈 안드 는 선거가 실현되어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실명 제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의 대체 입법, 노동관계법의 회기내 처리, 추경수입 및 수매량 등 민생문제 현안에 대한 내용도 상당한 논란과 더불어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 다.

과거청산 요구 받아들여야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는 국정조사 의 매듭이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 라 의사일정 진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는 예로부터 5.6공과 3대 의회 사건(평화)의 제 12·12 유공 사업)의 중심인물인 전직대통령의 청문회였다. 조사대상자 사안의 비중 이나 증인수(51명)에 대해 조사기간 (10일)의 미흡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탓에 결국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가 되어 국민들의 기 대를 저버리고 말았다.

국정조사에서 굳이 성과라고 할 만한 것은 김대중이 평화의 땅에 장의관보임권을 인정, 민주당 이석연 의원이 안기부가 평화의 땅 에 조직적으로 개입·조작했다는 사 실을 원칙적으로 인정, 노태우 전대통령이 12·12는 쿠데타라 고 증언한 것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낳은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김영삼대통령이 5.6공 청산에 대한 확실한 태도를 가지고 있지 못 하다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김영삼대통령이 5.6공에 대 한 태도를 확실하게 가지지 않으면 정치도 가이도 정치도 어렵다. 개혁도 가이도 어렵다. 그러므로 과거청산 을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에 적절하 게 대답을 하지않은 지체가 앞으로 개 혁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김대통령이 절단을 내려 국정조사가 계속되고, 전직대통령들이 증언대에 나와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광 경을 텔레비전에서 생중계 해야 할 것이다.

국정조사에 대한 매듭을 시원스레 풀고 올바른 정치의 복원과 정치개 혁의 첫걸음으로 역사에 기록되는 정 기국회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김동훈 <자유기고가>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의 기자회견

정기국회에서

개정돼야 할 노동법

'93년 노동법 개정투쟁'에 대한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이하 전노대회) 주최의 기자회견이 지난 9일(목)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노동법 개정투쟁의 역사와 의의, 조건, 앞으로 진행될 개정투쟁의 방향과 주요사업 등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되었다. 다음에서는 그 내용을 정리·해설하고자 한다. <편집자>

지난 8월 24일(화) 노동부는 그동안 급변 정기국회의 개정을 공언해 온 노동법에 대해서 자국의 이해 대립이 첨예하다는 것을 이유로 '내년 적절한 시기에 개정하겠다'며 연기 방침을 천명했다. 노동법 개정투쟁을 급진 하반기 최대의 중점사업으로 설정해 온 노동법에는 '청년백악'과도 같은 중점사업이었다. 노동법 개정투쟁은 87년 노동자 대투쟁 과정에서 생성된 민주노조들이 집결하기 시작한 88년 부터 시작되었다. 임금투쟁이 단거리이고 현상적 측면에 대한 변화의 성취를 따는 것이라 면 노동법 개정투쟁은 보다 더 본질적인 노동자 해방의 길로 변화와 정경에 있는 것이다. 88년의 노동법 개정투쟁은 88년 3월 임시국회에서 노동법개정이라는 성과를 낳았지만 노동자 전대투쟁의 거부권 행사로 무위로 돌아가는 정경을 남기 게 된다. 그 이후 계속되는 노동법 개악시도에 맞서 전노대회, 인총회의 등은 지난 10월 부터는 ILO에 개정청구의 단결권 침해 를 제소하고 92년 11월 여의도에서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를 집결해 개혁하는 등 노동법 개정투쟁을 집결하게 준비해 나갔 다.

사회개혁의 대표는

노동개혁입니다.

'93년 3월 ILO는 노동계가 핵심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복수 노조 금지조항 삭제,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 보장, △제3자 개입금지조항 삭제 등을 유엔장부에 권고하면서 정치 노동법 개정투쟁에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게 시작되었다. 5월에는 노동법개정안 스코프 '제3자 금지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밝혔고, 노동법 개정의 6월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의 출범을 기한 후에는 '상당단체 복수노조 허용'방침을 검토하기에 이르

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곧바로 기업가들의 반발에 부딪혔고 현대노동조합 투쟁을 거두고 나서는 위의 세가지 사항 중 어느 것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며 7월 29일 '근로자 파견법'을 비롯한 여러 개혁입법의 노동법 개정안 을 고조했다.

노동자들의 투쟁과 기업가들의 반대, 잇따르는 노동자들의 반발,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정부는 결국 노동법개정의 연기를 선언한 것이다.

전노대회는 사활을 걸고 온 하반기에 노동법 개정투쟁을 전개 할 것을 다짐하고 구체적인 사업들을 진행해나갈 것이다. 현재 준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민주노동조합 대표로 수련회를 시발로 교육·선전과 문화공연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정기국 회에 노동법개정을 안건으로 제시하는 등의 입장을 잡고 있다. 이 밖에 노동법 개정 쟁점인 임금, 근무시간을 비롯한 대 국민 투쟁, 전직대통령 청문회, 정치자금, 정치개혁 등의 1노조 1인회, 1인 1살인 운동은 전노대회 내각 방침이다.

노동법 개정은 우리 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의 사안이 걸린 문제라는 의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모든 사회개 혁을 대표하는 것이 노동개혁이라는 데서 그 중요성을 더 실감 할 수 있다. 김영삼 정권의 대표적인 치부라고 일컬어 지는 노동법개혁의 일단 변혁이라는 어떠한 개혁도 하구할 수 밖에 없다.

<사회부>

생각해보면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기술로 최초의 국산모델 '포니'를 만들고 난후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밤낮없이 뛰었지만 우리 차의 기술력과 품질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탓에 여러 고비고비마다 벽에 부딪히고는 했습니다. 그런 시절 국산차 수출 1호로 에라도르에 치루수출했던 다섯대의 포니- 지금 18년을 뛰고도 끄떡없이 달리고 있는 그 '포니'는 다음아닌 오늘 세계 160여개국에 250만대 이상을 수출하게된 품질력과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때 포니가 사원이었던 제가 어느덧 포니의 연륜만큼이나 고상사원이 된 지금, 또다시 새롭게 수출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비행기 트램을 오를 후배들에게 이런 격려의 말을 해주려 합니다. "포니신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좋은 환경, 좋은 차
현대자동차

“「포니」 신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976년 국산차 수출 1호로 에라도르에 수출한 다섯대 '포니'. 1982년 약 50만대를 수출한 이후부터 수출량이 급증하고 있다. (1993년 4월 22일, 에라도르 오로 키노에서)

우리를 지키는 외대인 - <2>



수학과 2학년 허영민

'한(恨)의 역사' '역할 속의 삶'...
혹자는 이렇게 단정지으며 우리 역사를
어떻게 선택했는지. 하지만, 우리의 삶
과 정서를 담고 있는 우리 노래가 '비련',
비애'일 수는 없다. 어려움을 받고 일어
서며 희망찬 내일로 가꾸어왔기 때문이다.

“너와 나만의 노래가 아닌
‘우리’의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큰길에 이어온 역사속에서 뿌리를
찾고, 이 시대의 노래에 대한 과제를 풀
아려는 노력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
는 것이다. 외대에서도 그 맥을 잇는 노
력을 함께 하는 이들이 있다.
“우리의 노래가 이 그늘진 땅에 따듯
한 햇빛 한줄 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새롭게 낫았던 신입생 수련
회 때 가슴속으로 전하게 스며들었던 이
노래를 듣고 '해무리'의 문을 두드리게
된 허영민(자연·수학 2교)을 만나 보았다.
그 또한 대중가요를 즐겨 부르다가 인
중가요를 접하게 되었을 때 적지않은 거
부감을 느꼈다고 한다.
사회참여적 목적으로 지어진 가사들,
현실적인 단어들로 구성된 민중가요는

시장을 속삭이고 미화된 단어들로 가득
찬 '대중가요'와는 색다른 분위기를 지출
부터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내년 분위기는 시간이 지난수록 민중
가요는 '확실히' 분야의 조성의 선두로
매도되고, 대중가요를 선호하는 방향으
로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학
내문화의 움직임 속에서 차츰 민중가요
를 통해 다가진 우리 삶의 현실과 설움을
느꼈 수 있었다.

그리고 노래를 하면서 개인주의적 풍
토를 풍동체적으로 전환시켜 나가기
아닌 우리를 생각하게 되었다. 이것은
민중가요를 부르는 풍자에서 느낄 수
있는 것으로 한정되지는 않는다. 누구나
함께 느끼고 공유할 수 있는 바로 우리
현실을 이야기하는 우리 노래인 것이다.
그때와 인과관계로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다. 민중가요가 가지고 있는 현재 가
장 큰 고민으로 '함께하는 노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무리에서는 단대마다 노래제를 결성
하여 잘못된 학내문화 풍토를 개선하는
한편 각 노래제를 함께 하는 공간만 만
다.

“너와 나만의 노래가 아닌
‘우리’의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의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들여 우리노래를 생활의 일부로 자리잡
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민중가요를 더 널리 보급시키기 위해
후배들과 함께 여러가지 일을 진행시키
고 있지만 학생들의 참여는 점점 줄어들
고 있습니다”라며 적극적인 지원 학생
들을 만났다.

우리의 노래, 민중가요 한 구절 구절
이 어떻게 쓰여졌고 어떤 의미로 만들어
졌는지를 끊임없이 연구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희망에 찬 그의 표정과 맑이 펴 인상
적이다.

“너와 나만의 노래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이우미 기자>

(임정호: 필현원, 문지: 783-8233)

노래로 읽는 책 이야기

— 노래를 찾는 사람들

‘93년 ‘책의 해’를 맞아 독서의 계

절을 맞이하여 대중들의 문화

및 대중문화를 선도하고, 문학

속에 내재된 민족의 삶과 우리

사회의 모습을 음악으로 재현

상화하는 ‘문학의 음악의 만남

을 담은 시, 소설, 산문 등 대

중

을 담은 시, 소설, 산문 등 대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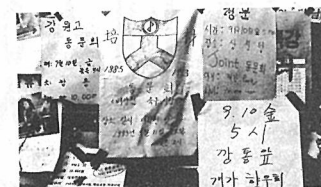
중

중

중

중

□문화 논평—동문회 문화 이대로 좋은가



“안나오면 동문의 이름으로 피의 복
수물 / ‘죽’ / 죽 / 죽 / 나라. 안나
오면 알겠지”

마치 나가지 않은 엄청난 복수극이
일어난 것처럼 섬뜩한 협박을 하고 있
는 동문의 대자보다. 나가고 안나가고
하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제 ‘동문회’는 중요한 5시부터 시작
되는 ‘학부의 밤’과 상충하게 되었다.
동문회는 순연중 ‘영고’ 마치고 출중
고 노자부르는 요일’으로 전래해 버렸
다. 먼저 상경할, 분주다. ‘장동에서
모인다. 술을 많이 마시며 기뻐할 수
있게 밤을 먹는다. 본격적으로 술과
노자로 캐러쥔 시간을 보내고 사이가
가 멀어지는 학과에서 정경에 달한
다. 마지막 크는 노래에서 정경한
다. 늦어지면 외박마조도 불사하는게
이렇듯, 단지 ‘동문회’라는 구실로 대

동문회의 전부가 되어 버린 현실이다.
이렇게 소비적이고 향락적인 동문회
를 줄이기 위해서는 금전의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불과 몇년 전만해도 회비
는 없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단원
+가’ 회비다. 이 ‘가’는 많을 수록 좋
다. 어차피 줄이기 위해 돈은 필수적인
이것. 지금의 동문회 문화는 단적으로
알 수 있겠다. 심지어 ‘회비 2만원’
이라 쓰인 대자보에는 “이 돈으로는 정
당히 권리로 못가! 불만은 없겠지”라
는 문구가 담담하게 쓰여져 있다. 현실
사회에 걸린 지점선과 다를 바가 없
다. 대학인으로서 만들어야 할 대학인
문화는 추악하고 어디에서든 찾아
볼 수 있다. 줄이지는 삶의 문화가 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단지 ‘동문회’라는 구실로 대

학부의 향락적이고 퇴폐적인 문화를 하
주 줄이지는 삶의 문화가 변하고 있
는 현실이다.
동문회에 고온 눈길을 보낼 수 없는
도 하나의 요인은 군사문화의 팽배함
이다. 세력가, 신인생태계가 굳기(?)를
꼭 잡아야 한다는 ‘신고식’이 군사문화
의 대표적인 예이다. 첫 동문회부터 주
대표할 수 없는 정도로 술을 강요하는 풍
토와 일정한 위계질서를 잡기 위한 분
비율, 모두 소비되고 있는 고아원을 찾
아가거나 모교를 방문하여 옛 선생님을
찾아 뵙는 것은 특히 남자고등학교 등 동
문회의 경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
때문에 후배들은 대학에 와서까지
자신들을 구속하려 한다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 동문회 참여를 기피하게
된다.

한편의 퇴폐적이고 소비적인 문화,

□문화기획—학내 과신문에 대해서

또 하나의 대학언론, 과신문

학부와 방송, 교지 등이 주
를 이루던 대학언론에 89년부
로 새로운 동향으로 시작하는 것
이 있다. 바로 ‘과신문’이다.
최근들어 여러분으로 폐간되었
던 과신문들이 속속 다시 만들어
지고 있으며, 현재 기동할 수
있고 있는 것이다. 그는 말한다.
희망에 찬 그의 표정과 맑이 펴 인상
적이다.

“너와 나만의 노래가 아닌
‘우리’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공영이야기—외대 연극회

‘눈 혹은 더러운 신의 발자국’



아름다운
‘눈’을 찾아서

서울캠퍼스 동리의 ‘외대연극회’가 지난 10일 (토) 제
19회 워크숍 공연을 서울캠퍼스 대강당에서 펼쳤다.

이번에 공연된 연극 ‘눈 혹은 더러운 신의 발자국’은
고야로 지낸 한 소년이 현실의 어둠을 접함으로써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꿈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고, 구두를 쥔

학자금 대출을 받으신 학생여러분에게 !

학자금 대출은 학생여러분의 면학을 돕기 위하여 입학금 또는 등록금을 대출하여 드리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할 상환하는
용자제도로서 국민은행은 보다 많은 학생여러분에게 학자금을 융자해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상환방법

구 분	상 환 기 간	상 환 방 법
단 기 학 자 금	대출후 1년 이내	매월조정 납입일에 대출원금의 균등분할액과 대출잔액에 대한 이자를 납입
장 기 학 자 금	85. 8. 1 이전대출 받은 분	원금: 거치기간(제학기간) 경과후 3년간 매월 균등분할상환 이자: 거치기간중에는 대출후 매 3개월, 원금 상환기간중에는 매월 납입
	85. 8. 1~89. 12. 21 이전대출 받은 분	원금: 거치기간(제학기간) 경과후 5년간 매월 균등분할상환 이자: 거치기간중에는 대출후 매 3개월, 원금 상환기간중에는 매월 납입
	89. 12. 22. 이후대출 받은 분	원금: 거치기간(제학기간) 경과후 5년간 매월 균등분할상환 이자: 거치기간중에는 매월, 매 3개월 또는 매 6개월 단위로 납입 ● 원금분할상환기간중에는 매월단위로 납입

주) 장기학자금 대출을 받으신 분으로 군복무예정자는 입영통지서를 지참하여 대출금 기한 연기절차를 취하지만 군복무기간만큼
거치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으며 군복무 기간중에도 이자는 매월 납입 하여야 합니다.

2.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지 않으려면

학자금대출을 연체하지게 되면 은행으로부터는 제때에 회수를 못하게 되므로 자금의 회전이 어려워지고 따라서 보다 많은 여러분의 학우
들에게 융자하여 드리고자 하는 저희은행의 노력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고율의 연체이자를 부담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3.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고 계시는 학생여러분에게

연체가 경리되지 않으면, 학자금대출의 확대발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또한 학자금대출을 일반서민대중이 알뜰히 저축한
자금으로 융자하여 드리고 있는 점을 심심 감안하시어 연체금 정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득이하여 연체를 하시는 분은 대출을 받으신 지점에 상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은행

긴급진료는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전달체계는 환자가 종합병원등 특정의료기관이나 도시
지역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하여 국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응급환자를 제외하는 거주지
를 중심으로 한 중진료원에서 1차진료를 받거나, 1차진료기
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2차 또는 3차진료기관
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긴급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는 이러한 절차없이 전국의 요양기관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
다.

의사의 즉시처치가 요구되는 상태의 응급환자나 출생, 여
행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진료소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진료가 가능하며, 이 경우 진료가 4일이상 계속 될 때에는
요양기관에서 4일째되는 날로부터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진료사실통보서”를 작성하여 보건청(공단)에 통보하면 됩
니다.

<긴급진료와는 별도로>

○ 환자간호 등 가정형편상 부득이 다른 진료원에서 진료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보험자(공단)으로부터 “타진료원
진료확인신청서”를 확인받아, 진료시 요양기관에 제출하면 됩
니다.

○ 분만(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배우자만 해당)의 경우
에는 전국 어디서나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관리공단

기획 좌담

왕산발전, 어떻게 일구어낼 수 있나?

토론자: 김창호 (직원 노조 부조합장)
강예환 (사회·경제4, 동아리연합회 부회장)
이영록 (대학·아프리카어4, 운동본부 사무국장)
정소: 의대학보 조사자료실
일시: 9월 10일 (금)
사회 및 정리: 여문부
(편의상 존칭은 생략)

유인캠퍼스가 성립된 지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이 기간동안 전대들은 학교발전을 위해 무한한 노력을 했고 지금이 순간까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본질적인 면에서의 발전은 진부후한 상태이다. 즉, 학교발전은 무슨 일이든 돈으로 해결되는 시대이다. 그렇지만 현재 의대의 교육여건은 구질적으로 어떠한가? 그 발전은 왜 이렇게 더디단 말인가? 조금이나마 이러한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보고 유인캠퍼스 발전의 모습을 그려본다면 어떨까?

사회: 지금 각 단에서 학사사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제기되는 문제점 또한 많다. 이에 대해 말해보자.

김: 현재 직원노조에서는 근무환경이나 복지문제보다는 중장기인생관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교수협의회에서 교수직에 대한 중장기인생관이 논의되고 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학원 3주제에 의해 중장이 선출됐을 때 외대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지난 1학기 제2학제 교육여건과 학내 복지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번 2학기 대입생, 동구어대 단대본리 문제 중 학생자치권 확보를 위한 사안과 맞물려 활발히 제기되고 있고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현재 학생복지관 건립을 위한 준비가 차질없이 되어 있다. 학내 복지환경의 성과로 마련된 학사운영되지 않은 학생복지관 건립과 사관, 양제발달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한창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사회: 유인캠퍼스에는 전통적인 제2캠퍼스의 문제점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원의 형성이 안됨으로써 교육, 복지, 기술사관 등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

김: 타대학에 비해 유인캠퍼스의 복지환경이 뒤떨어진다는 지적은 학원들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학생들의 불편을 느끼고 있는 교육문제들은 출퇴근 시간에 맞춰 교통비를 이용하면 된다는 실정이다. 하지만 식량의 위생문제와 식단문제에 있다. 그리고 직원들의 자연적 감소에 비해 중임이 인제 직원, 학생 모두를 불편을 느끼고 있다.

김: 동아리 학생들에게 학생회관의 환경문제와 공간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 2천여명의 학생들이 사용하기엔 학생회관이 너무 비좁고 동아리활동을 한 후 차원이 넓기 때문에 마음놓고 활동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학생회관 내의 환경 즉 방음이 안되고 분실 사건이

이 할 수 있는 부분의 고민이 부족했다.

김: 이러한 문제점에 마련한 합의서를 지켜내지 못한 것 같다. 더 이상 합의서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으려면 밀집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김: 공간부족 문제와 교통문제는 대학원이 형성되지 않은 한 근본적으로 해결이 어렵다. 그리고 교통문제는 대학원의 형성과 함께 노선배스가 확충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지입버스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김: 분당선이 완공되고 유인-광주간 도로공사도 완공되면 그 해결이 어느정도 진척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외곽 지역은 정화한 통

행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 이번 2학기에 학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일단의 해결책으로 학생복지관 건립이 제기되고 있는 데...

이: 학생복지관 건립이 제2캠퍼스의 제반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학생복지관 건립이 제2캠퍼스의 제반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학생복지관 건립이 제2캠퍼스의 제반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를 통해 교통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 교통문제는 장단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분당선이 완공되면 새로운 교통편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즉 지하철 건설후 서울버스나 학교와 직접 이을 수 있는 도로가 마련돼야 한다. 또한 제2캠퍼스가 밀집해 서로 비슷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경인지역의 학교들이 경인총

을 통해 교통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 교통문제는 장단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분당선이 완공되면 새로운 교통편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즉 지하철 건설후 서울버스나 학교와 직접 이을 수 있는 도로가 마련돼야 한다. 또한 제2캠퍼스가 밀집해 서로 비슷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경인지역의 학교들이 경인총

을 통해 교통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것은 아니지만 유인캠퍼스 발전의 차질을 줄 수 있다. 학원 3주제의 합의를 같이 할 수 있는 타협으로써의 학생복지관은 그런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김: 동아리의 공간협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2학생회관이 제기된 중, 학생복지관은 세미나실, 전시설, 시청각실 등이 있는 제2학생회관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김: 학생복지관이 교수와 직원에게 잘살아 필요로 요구하는 아니다. 하지만 설문조사나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그 용도를 설정한다면 함께 건립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토론하는 과정에 학원 3주제의 협의가 주요하게 대두됐다. 지난 시기, 학교발전을 더디게 하는 하나의 큰 오류로써 학원 3주제가

협력하지 못했던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 서로간에 정보나 대화의 부족했던 것 같다. 학교발전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함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도 더욱 강력한 힘이 될 것이다.

김: 3주제가 힘을 합치지 못하고 분산시키는 경향이 있다. 학교발전에 관해서는 3주제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사회: 앞에서 토론한 바와 같이 이번 토론회에서 학원 3주제 단결의 필요성에 대해 다스리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서로 요구하는 사항이 다르다고 해도 그중에서 공통분모를 찾아 함께 할 때 유인캠퍼스 발전이 남보될 수 있을 것이다.

외대발전, 교수·학생·직원의 협력으로 건립된 학생복지관으로부터

주주 발생하고 벽에 페인트가 벗겨지고 급이 가는 등 열악한 환경문제가 크게 느껴지는 문제점이다.

이: 유인캠퍼스에는 전통적인 제2캠퍼스의 문제점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원의 형성이 안됨으로써 교육, 복지, 기술사관 등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

사회: 13년간 수업까지 포기하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선배들의 노력에 비해 그 결과는 만족할 만한 성과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 재단이 학교발전을 위한 큰 계획을 내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그때의 미봉책으로 학내 사안 작성하고 그간 지체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학원 3주제가 각

인 대책이 없다. 그리고 교통문제는 대학원의 형성과 함께 노선배스가 확충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지입버스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김: 분당선이 완공되고 유인-광주간 도로공사도 완공되면 그 해결이 어느정도 진척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외곽 지역은 정화한 통

행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 이번 2학기에 학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일단의 해결책으로 학생복지관 건립이 제기되고 있는 데...

이: 학생복지관 건립이 제2캠퍼스의 제반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학생복지관 건립이 제2캠퍼스의 제반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학생복지관 건립이 제2캠퍼스의 제반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학생복지관 건립이 제2캠퍼스의 제반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학생복지관 건립이 제2캠퍼스의 제반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학생복지관 건립이 제2캠퍼스의 제반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학생복지관 건립이 제2캠퍼스의 제반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학생복지관 건립이 제2캠퍼스의 제반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학생복지관 건립이 제2캠퍼스의 제반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학생복지관 건립이 제2캠퍼스의 제반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학생복지관 건립이 제2캠퍼스의 제반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학생복지관 건립이 제2캠퍼스의 제반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학생복지관 건립이 제2캠퍼스의 제반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학생복지관 건립이 제2캠퍼스의 제반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학생복지관 건립이 제2캠퍼스의 제반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학생복지관 건립이 제2캠퍼스의 제반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학생복지관 건립이 제2캠퍼스의 제반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학생복지관 건립이 제2캠퍼스의 제반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학생복지관 건립이 제2캠퍼스의 제반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학생복지관 건립이 제2캠퍼스의 제반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학생복지관 건립이 제2캠퍼스의 제반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학생복지관 건립이 제2캠퍼스의 제반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학생복지관 건립이 제2캠퍼스의 제반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학생복지관 건립이 제2캠퍼스의 제반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학생복지관 건립이 제2캠퍼스의 제반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학생복지관 건립이 제2캠퍼스의 제반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학생복지관 건립이 제2캠퍼스의 제반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학생복지관 건립이 제2캠퍼스의 제반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학생복지관 건립이 제2캠퍼스의 제반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학생복지관 건립이 제2캠퍼스의 제반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학생복지관 건립이 제2캠퍼스의 제반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학생복지관 건립이 제2캠퍼스의 제반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학생복지관 건립이 제2캠퍼스의 제반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학생복지관 건립이 제2캠퍼스의 제반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학생복지관 건립이 제2캠퍼스의 제반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학생복지관 건립이 제2캠퍼스의 제반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학생복지관 건립이 제2캠퍼스의 제반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학생복지관 건립이 제2캠퍼스의 제반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학생복지관 건립이 제2캠퍼스의 제반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학생복지관 건립이 제2캠퍼스의 제반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학생복지관 건립이 제2캠퍼스의 제반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학생복지관 건립이 제2캠퍼스의 제반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학생복지관 건립이 제2캠퍼스의 제반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프리아모스 왕의 명령

아 떨어졌던 트로이 성민들은 금세 아버지들이 들려오는 지옥같은 불구덩이 속에서 저마다 살점을 찾아 이리 뛰고 저리 달리고 있었다. 물론 이런 급박한 경우에 제일 귀중한 것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일 것이다. 그러나 재물없는 애가운 생명은 잃을 어쩔 수 없는 인간들의 운명이다. 추운데

금요일명제 실시와 함께 경조한 금고나 007가 많이 불타나게 팔리고 있다.

장 선 영
〈서반아어과 교수〉

프리아모스 왕은 술에 취해 정신없이 자다가 갑자기 밖에서 나는 아우성 소리에 벌떡 일어났을 것이다. 순간적으로 적군이 성내로 쳐들어왔다는 것을 안 그는 밤비 해를 깨고 패를 들고 장구까지 달려나갔을 것이다. 그리고 적군이 궁중에 난입했을 때 그제서야 그는 무장하고 출정하려고 했으나 가

버티었다. 하지만 그만 적군의 목마작전에 감쪽같이 속아 하룻밤 사이에 아이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거대한 목마의 복부로부터 살상 기어나온 그리스군의 용사들이 사방에 불을 지르면서 성문을 활활 연다. 성밖에서 대포가 울었고 그리스군이 쏟아져 들어오고 적군이 멀리 피란한 줄 알고 간담에 마음놓고 술을 마시고 팔

보타나는 미래를 향해 탐구하는 젊음이 있습니다.

동양 최고의 천문관측대인 청성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한글, 팔만대장경, 측우기, 금속활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했던 선조들의 빛나는 과학, 문명의 업적들은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온 힘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선조들의 지혜를 본받아 끊임없는 탐구와 노력으로 보다 나은 미래를 건설할 것입니다.

한국전력은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우리 젊은이들의 탐구정신의 바탕이 되고 싶습니다.

한국전력공사

다른 대학에선

이화여대

학보사에 전자
통신망 도입

국내 대학신문 최초로 이화여자 대학에서는 편집 등 모든 업무를 근거리 통신망(LAN)으로 전산화시켜 학보사 내외의 전자통신망이 가능하게 되었다.

지난 여름방학 중에 이화여대에 도입된 이 시스템은 기사작성 분리·화장공사와 함께 7대의 컴퓨터 도입으로 이루어져 각 PC내에 기사입력용 프로그램을 통해 기사를 작성하고 모뎀을 통해 인제로 전송하게 됨으로써 회기적으로 제작시간이 단축된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편집업무의 전산화로 전문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편집·전산화팀을 담당하는 2명의

전문 연구원이 상근하게 되었다.

서울시립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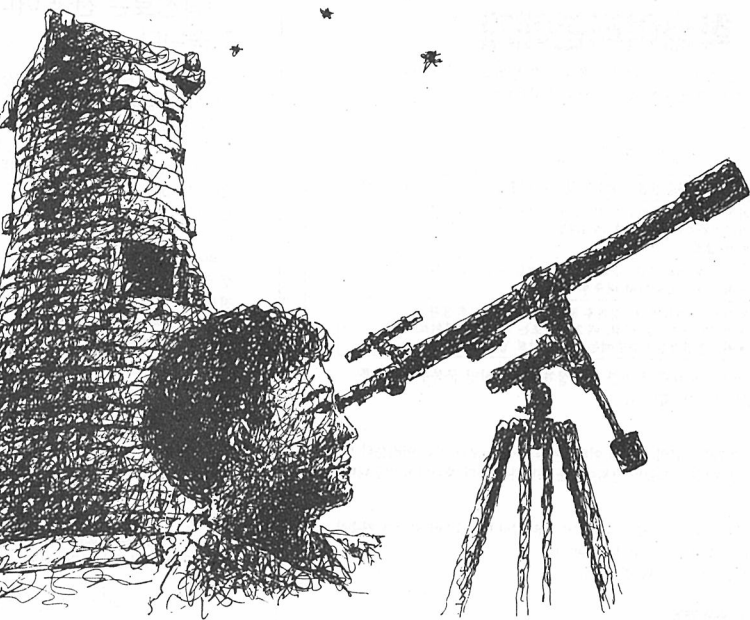
개강호 신문,
배포 금지 당해

지난 8월 30일자로 나온 서울시립대 신문 개강호가 학교당국에 의해 배포가 금지되었다. 그 이유는 학내 교수신문문제에 대해 온건 기조 중 1년만에 있었던 두 학과 교수의 퇴진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파업시위의 장면이 문제라 된 것이다. "교수신문"은 불타고 있는 사건에 학교에서는 개입을 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사안에 대한 사정·다른 사건이나 교수의 이름을 지은 사진을 실도록 요구했고 이에 불응한 신문배포를 금지한다고 하여 이번 사태가 벌어진 것이

다. 이 사태에 대해 학생들은 "교수신문과 학생신문의 학생참여 배제와 교수간의 파벌에 대한 고발내용 때문일 것이다"고 말하며 맹렬한 편집자료를 탄압한 사태라고 반발하고 있다.

시립대에서는 작년 세무학과 학생들에 의해 교수신문을 기증·문화, 공개강의를 통한 학생들의 수업을 학교공과 약속했으나, 학교측은 당시의 약속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교수신문을 추진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교수신문을 기증·문화, 공개강의를 통한 학생들의 수업을 학교공과 약속했으나, 학교측은 당시의 약속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교수신문을 추진한 것이었다.

한편 시립대 신문사에서는 '대학원생의 편집자료를 온건한 이유로도 철회할 수 없다' '교수신문'은 급진적 성향이 아니냐. 학생참여 없는 공정한 교수신문을 있을 수 없다' '대학신문'은 학과당국의 기득권을 걸사 반대한다'라는 기사를 실고 학교당국과의 분쟁해결에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편리한 전기 소중하게 아껴주세요.

서울 총학생회장, 징계후 제적 위험 학생들, 부당한 징계 철회 요구 대학당국 입장표명 곧 있을 듯

서울캠퍼스 총학생회가 1학기 총학생회장과 관련된 대학당국에 이의 철회를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영리와 학생회가 부당한 대처를 하려면 이철호(사영·영 어 4) 총학생회장이 9월 중으로 제직을 당한다는 문구가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영리와 학생회는 '무기정화' 사건에 대한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사라져, 이철호 총학생회장이 2학기 개강 이후에도 수감생활을 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교수들에게 징계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철호 총학생회장은 "아무리 무기정화라도 묶어있었지만 동복의 기회를 박탈해 버린다는 것은 이미 교육기관임을 포기하는 처사"라며 "부당한 징계처분을 가한후 총학생회장을 학생의 대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총학생회 자체를 부정하는 의미이다"라고 대학당국에 항의했다.

고 이경희씨 위령제

노어과·민동 주최

용인캠퍼스 노어과는 지난 6일(월) 비상총회를 갖고 3일(화) 라디오에서 사망한 이경희(사학·노어 88학)의 위령제를 안건으로 논의했다. 한편 노어과에서는 13일(월) 이씨의 추모위령제를 갖고 애도를 표하고 용인캠퍼스 입구에서 학생회관을 거쳐 명수동으로 추모행진을 하기도 했다.

백기완씨 강연회 열려 대학내 정치문화 활성화 강조

전보시대 개혁당이 주최하는 백기완씨의 강연이 지난 9일(수) 서울캠퍼스 노년극장에서 열렸다.

오는 17일까지 '일몰시장' 열려

서울캠퍼스 학생복지위원회는 '새학기 맞이 일몰시장'을 13일(수)부터 17일(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본관 앞 넓은 광장에서 열었다. 여기서 나온 수익금은 수배자를 위한 기부금으로, 대학원 총학생회실에 해적 프린팅기 등을 구매하여 기부할 예정이다.

국외 영화인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징계규정 15조 1항에는 '유기정화의 경우 3분의 1 이상 무기정화의 경우 1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 지도교수 및 소속학과 학과장의 권리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총학생회는 징계제도가 아닌 부당한 징계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로렐라이' 정가공연

양평캠퍼스 독어·독문학과 학생들은 10월 10일(토) 로렐라이는 제10회 정기학

서울, 추석귀향 버스 운행 오는 17일까지 접수

서울캠퍼스 학생복지위원회는 추석맞이 귀향버스를 운행하며, 접수는 13일(월)부터 17일(금)까지 도서관 앞에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한다. 노선은 대전, 광주, 부산 등 28개 노선이며, 요금은 고속버스 요금의 80% 선이다.

이정희 교수 시민포럼 준비

법학과 이정희교수가 원장으로 있는 시민포럼인 '아시아 사회과학연구원은 '남북연립대학을 대비한 법·언론의 과제'라는 주제로 93년도 제2회 통일문제 학술심포지엄을 연다. 이 행사는 16일(수) 대학 상공회의소에서 열린다.

양평캠퍼스 독어·독문학과 공동 주최로 열리는 이 행사는 서울캠퍼스에서는 18일(토) 오후 6시 대강당에서, 용인캠퍼스에서는 14일(화) 오후 4시 지연대 강당에서 열린다.

살아있는 유대촌

지난 10일(금) '총동문회장이 경향' 남대주대학'와 '외대사랑' 협조로 에버랜드 축구대회가 각각 결승전을 치렀다. 남대주부는 에버랜드가, 여주 부문에는 영리아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고, 에버랜드 축구대회는 인도어아가 우승을 차지했다.



살아있는 유대촌. 지난 10일(금) '총동문회장이 경향' 남대주대학'와 '외대사랑' 협조로 에버랜드 축구대회가 각각 결승전을 치렀다. 남대주부는 에버랜드가, 여주 부문에는 영리아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고, 에버랜드 축구대회는 인도어아가 우승을 차지했다.

동구어대, 단대분리 투쟁 본격화 서명운동·청와대민원...파업도 불사



동구어대 학생들이 부총장실 앞에서 단대분리를 요구하고 있다.

동구어대 학생회는 지난 8일(수) 이후로 부총장에게 직접 동구어대 단대분리를 위한 공개 집회를 계속해왔으며, 단대분리를 요구하는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단대분리를 요구하는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양캠퍼 인도어와 주칙 친선 체육대회 열려

양평캠퍼스 인도어와 학생회는 15일(수) 서울캠퍼스 노년극장에서 친선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야구, 여학 생 발아구, 에버랜드 축구, 여학 생 씨름 등의 경기가 열릴 예정이다. 이 행사를 준비하는 인도 어와 학생회에서는 '외대라는 하나의 울타리'에 불과하고 캠퍼스가 떨어져 있어 서로가 너무도 멀어져 있었다'며 '서로 찾아오는 교류를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인도어와 발전을 위해 함께 공유했을 수 있는 것이 될 것'이라며 행사취지를 밝혔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양 캠퍼스 공통과들의 친선행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프랑스 종합 예술제 열려

불어·불교과 하나로 묶는 계기

'프랑스 종합 예술제'가 15일(수)부터 17일(금)까지 서울캠퍼스 불어·불교학과 주최로 열린다. 대강당과 대학원 소강당에서 열리는 이 예술제는 노래출연, 프랑스 영화회, 원어연극 마당놀이 등 다양한 공연이 열린 예정이다. 13일(월), 14일(화), 저녁 6시 30분 대학원 소강당에서 개최되는 '프랑스 노래출연 공연'은 상상을 뛰어넘는 프랑스 문화를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를 다루는 의미있는 내용을 담은 영화들을 상영하는 영화제는 14일(화), 15일(수), 16일(목) 3일간 대학원 소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용인 공안관

졸업 작품전 개최

용인캠퍼스 미술동아리 하얀 공간은 학생회관 전실실에서 지난 6일(월)부터 10일(목)까지 '졸업 작품전 및 회고전'을 개최하였다. 하얀공간 출신 졸업생들의 작품을 모아, 회고전을 가지기 위해서 동아리내 작품을 다량 전시하는 취지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35점의 작품이 전시되고 주목을 끌었다. 미술반 지도를 맡고 있는 김광호 수(독일어과)는 "전시회를 통해 더욱 교양을 풍부히 하고 보다 발전된 모습을 꾸리자"고 축하의 말을 대신했다.



총학생회는 7천 학생의 대표

표제입니다. 이 조직의 대표를 징계처분한 것은 학생들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동시에 대화를 폐쇄했다는 표시입니다.

한글은 '교육부' 단선적 제

를 받았다. 한글은 '교육부' 단선적 제를 국인의 청원인 중의 하나이고 광고도 우리의 주장을 알리

이제까지 1년을 제대로 넘겼

이제까지 1년을 제대로 넘겼어. 우리는 학교학과 지식을 습득한다. 총학생회는 학생의 대표로서 기구입니다. 학생들 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공동대응을 해

이제까지 1년을 제대로 넘겼

이제까지 1년을 제대로 넘겼어. 우리는 학교학과 지식을 습득한다. 총학생회는 학생의 대표로서 기구입니다. 학생들 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공동대응을 해

제3기 외대사랑캠프

'나'의 참여로 외대는 다시 살아납니다.

제1강의-지난날은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제2강의-학원자주화운동이란? 제3강의-학원자주운동과 외대발전 제4강의-외대의 현실 이렇습니다. 제5강의-외대발전, 이렇게 가능합니다. 제6강의-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서울 캠퍼스 부총장

회장 한종원(상경·무의 4)군을 만나

기를 평가했다. 한편 총학생회장과 총부총장회장은 학교에서 속속을 하기 때문에 운동장이 부족해 제적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하는 어려움으로 밝혔다. 또한 한글은 '외대 총학

서울 캠퍼스 부총장

회장 한종원(상경·무의 4)군을 만나

기를 평가했다. 한편 총학생회장과 총부총장회장은 학교에서 속속을 하기 때문에 운동장이 부족해 제적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하는 어려움으로 밝혔다. 또한 한글은 '외대 총학

서울 캠퍼스 부총장

회장 한종원(상경·무의 4)군을 만나

기를 평가했다. 한편 총학생회장과 총부총장회장은 학교에서 속속을 하기 때문에 운동장이 부족해 제적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하는 어려움으로 밝혔다. 또한 한글은 '외대 총학

수배 해제위한 축구대회 열려

본교생 4명, 수배해제 활동 참가

지난 7일(화) 오후 4시 30분 연세대 민주학생에서 '전국 정치수배자 대학' 주최로 '6공정수배자 일괄해제를 위한 축구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민주화실천가' '죽은동맹의들'(민간) 소속의 10여명과 본교생 30명등 3명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캠퍼스 '외대노래장'에서 열린다. 사단법인으로 시작되었

학복위, 복지 장학생 발표

90명에게 총2천7백만원 지급

서울캠퍼스 학생복지위원회는 2학기 복지장학생명단을 지난 6일(월) 최종 발표했다. 김양정(법·법학 3)과 김 양정(법·법학 3)의 총 90명의 본교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복지장학금은 총 2천 7백만

학복위, 복지 장학생 발표

90명에게 총2천7백만원 지급

서울캠퍼스 학생복지위원회는 2학기 복지장학생명단을 지난 6일(월) 최종 발표했다. 김양정(법·법학 3)과 김 양정(법·법학 3)의 총 90명의 본교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복지장학금은 총 2천 7백만

1학기 총학생회 결산 공고

(93. 3. 26~7. 2) (단위 : 원)

수입	지출
1. 행 사 자 금 41,500,000	1. 행 사 비 용 32,222,290
1) 총학 M.T 1,860,000	1) 속 식 비 705,800
2) 정기 학생총회 5,700,000	2) 상품 및 기념품 8,022,000
3) 임수정 전임직 1,190,000	3) 차량 사용료 2,037,200
4) 4. 19 기념식 3,450,000	4) 흥 보 비 1,782,000
5) 도서관 간식비 500,000	5) 뒤통이비 1,692,960
6) 축제 18,500,000	6) 기재 대여비 2,300,000
7) 불꽃놀이 1,500,000	7) 행사 부대비용 2,257,960
8) 여름놀이 9,000,000	8) 자 료 점 3,369,000
2. 장 학 학 금 24,334,000	9) 원원식대 1,479,650
3. 기 타 1,895,500	10) 도서관 간식비 266,000
1) 축의금 350,000	11) 교수 접대비 828,000
2) 야학기금모금액 963,500	12) 설회비 및 야학기금지원금 3,100,000
3) T-shirts판매금 582,000	13) 지 료 비 51,110
	14) 사무용품비 436,170
	15) 생활운영비 2,930,100
	16) 기계수리 및 유지비 964,340
	2. 단 위 지 급 금 8,710,000
	1) O.T. 미지급금 2,650,000
	2) 지원비 8,580,000
	(1) 과지원비 280,000
	(2) 단위지원비 4,410,000
	(3) 동아리지원비 1,170,000
	(4) 사생지원비 200,000
	3. 장 학 학 금 18,365,200
	4. 총 학 활 동 비 6,480,000
계 67,929,500	계 65,777,490
	이 월 일 여 금 2,152,010

제14대 참민주 총학생회

4124